

2020년 3월 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 과장 김형식(044-201-2231), 사무관 이남운(2236) / 제공일: 2월 28일(총 5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식품부, '20년산 마늘 선제적 면적조절 등 수급 안정대책 추진

《 주 요 내 용 》

- ☐ (전망) '20년산 마늘 재배면적, 전년보다 9.4% 감소하나, 평년보다 2% 증가
* 면적 : (평년) 24,603ha → ('19) 27,689 → ('20) 25,090 (전년비 9.4%↓, 평년비 20%↑)
- 마늘 생육은 온화한 월동기 날씨영향으로 평년보다 매우 양호
- ☐ 대 책
 - ① 마늘 구(球) 생성 이전인 3월 내, 500ha 내외 면적 생육단계 사전 면적조절을 실시
 - ② 비교적 정확한 생산량 예측이 가능한 4월 이후, 면밀한 작황 점검을 바탕으로 필요시 수출지원, 면적조절, 자율수급조절 등 단계적 수급 안정 대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년산 마늘 재배면적에 대한 통계청 예상 재배면적('19.12월) 결과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면적 실측 조사('20.2월) 내용에 따라 '20년산 햇마늘 수급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별한 생육장해나 병충해가 없을 경우 마늘 공급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관계기관 등과의 수급점검회의(2회)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의결(2.28.)을 거쳐 마련되었다.

1. '20년산 햇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 전망

□ KREI 재배면적 실측* 결과에 따르면, '20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5,090ha로 전년보다 9.4%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당초 전화조사 방식을 실측조사로 개선 : 전체 표본농가(978호)와 동행현장 방문 → App, GPS 장비 등 활용하여 재배면적(전년, 당해년) 실측 → 전년 재배면적에 실측 증감률 적용 면적 산출

○ KREI 실측 결과는 통계청이 '19.12월 발표한 예상면적 범위내에 있다.

* 통계청 마늘 예상 재배면적('19.12.27. ha) : 24,604~26,558

○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도 태풍 피해를 입은 양파 육묘의 대체 작물로 마늘 파종이 늘어 나는 등 양파보다 전년대비 면적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평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마늘 및 양파 재배면적(KREI 농업관측본부)

- 마늘 : (평년) 24,603ha → ('19) 27,689 → ('20) 25,090 (전년비 9.4%↓, 평년비 2.0%↑)

- 양파 : (평년) 20,404ha → ('19) 21,777 → ('20) 17,930 (전년비 17.7%↓, 평년비 12.1%↓)

□ 현재 생육상황은 예년보다 온화한 월동기 날씨 영향으로 평년보다 상당히 좋은 상태로 수확시기도 예년보다 10여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마늘 작황은 본격적으로 알이 굵어지는 시기인 5월 기상여건에 따라 가변적이나, 현 생육상황을 감안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평년보다 증가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 재배면적 감안시 마늘 생산량은 일부 과잉 생산이 우려된다

2. '20년산 햇마늘 수급안정 대책

□ 정부는 평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늘의 경우 선제적 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전 면적 조절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 과잉 생산시 산지폐기 부담 최소화 필요성과 향후 작황 호조 가능성을 감안하여 평년보다 증가한 '20년산 마늘 재배면적을 생육단계에서 우선 사전 면적조절 할 계획이다.

* 생육단계 사전 면적조절시 소요비용은 수확기 산지폐기 대비 70% 수준

○ 양호한 생육상황과 평년 대비 증가한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여 증가 면적 500ha 내외를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하여 구(球) 생성 이전인 3월말까지 생육단계의 마늘 재배지를 정리한다.

□ 또한 4월 이후에는 작황 변동성에 대비하여 작황을 월 2~3회 실측하고, 잦은 강우 등 돌발상황 등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작황 상황에 따라 단계적 대책을 준비 할 방침이다.

○ KREI 농업관측본부는 보다 정확한 생산량 예측을 위해 잎수, 키, 줄기 직경, 구(球) 크기 및 무게 등을 실측하여 생육 및 생산량 조사를 정밀하게 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관측본부,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산지 작황 순회 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주요 권역별로 생산농가, 산지농협, 유통인, 재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황 및 수급 점검회의(매월 1회 이상)도 개최하여 작황 실측 결과를 공유하고 수급 안정대책 의견도 수렴한다.

○ 이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생산량 가늠이 가능한 4월 이후 작황에 따라 면적조절, 자율적 수급조절 등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은 전년보다 한달 반이상 빠른 조치로 사전 면적조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요 양념채소인 마늘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 ‘작황 실측 및 생산량 예측 결과를 생산농가, 산지농협 등과 적극 공유하고,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사전 면적조절에 적극 참여하고 과도한 생산량 증가시 지역농협, 생산자, 유통인이 협력하여 크기가 작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마늘은 시장 출하정지 등 자율적 수급 조절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별첨

'20년산 양파 재배동향 및 전망

□ (재배면적) 농경연 농업관측본부 재배면적 실측 결과 전·평년보다 각각 18%, 12% 감소한 17,930ha 전망

○ KREI 실측 결과는 통계청이 '19.12월 발표한 예상면적 범위내 포함

* 통계청 양파 예상면적('19.12.27. ha) : 16,209~18,318

< '20년산 양파 재배면적 전망(KREI)>

단위: ha, %

연산	합계	조생종	중만생종
'20	17,930	2,683	15,247
'19	21,777	2,855	18,923
평년	20,404	2,880	17,524
전년비	△17.7	△6.0	△19.4
평년비	△12.1	△6.8	△13.0

○ 지난해 작황 호조 등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인한 수확기 낮은 시세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큰 폭 감소

□ (산지동향) 월동기 기온상승, 적절한 강우 등으로 현재 지상부 생육이 평년보다 좋은 상황으로 수확시기도 예년보다 10여일 정도 조기 수확 예상

○ 제주 극조생의 경우 구 직경이 4~5cm 수준으로 풋양파는 3.10경, 망포장(20kg)은 3.20경 본격 출하 예정

○ 조생종 포전 거래가는 제주 15천원/평, 무안 13천원/평 수준이며, 거래비율은 제주 80%, 무안 60% 수준으로 일부 거래 완료(산지농협)

* 중만생종은 작황 변동성이 커 포전거래 보다는 수확 후 망 거래 선호

□ (생산전망) 현 생육상황 감안시 평년보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로 적정 수준 생산이 예상되나, 구 비대기(5월) 기상여건에 따라 유동적